



# 그림은 시대를 어떻게 읽고, 뛰어넘었을까

###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 '예술가의... 형식 관찰기' 가족·소나무·백자·대나무·근·현대 작가 25명 70여 점 네 영역 작품에 담긴 사회적



'예술가의 사물을 표현하는 형식 관찰기' 기획전에 선보이는 배운성의 '가족도' (캔버스에 유채, 1930년대). 국가등록문화재에 오른 작품이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는 이 시대를 '진짜' 구현하고 있는가. 화면 위에 형상화된 나무와 꽃들은 인위적인 문화와 대비를 이루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 그대로일까.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이달 22일부터 기획전시실 1-2관을 통틀어 펼쳐지는 기획전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관람객들이 주체가 되어 찾아보라고 말한다. 기획전 제목이 이렇다. '예술가의 사물을 표현하는 형식 관찰기'.

"그림을 본다는 것은 시각 활동이 아니라 인식 행위다. 예술가가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면서, 세상에 대한

나의 인식을 확장하고 사색하는 행위이다." 이 말에 이번 전시를 준비한 의도가 응축되어 있다.

미술관은 관람객들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가족, 소나무, 백자, 대나무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눠 전국 국공립미술관 소장품 등으로 작품

을 준비했다. 4개 영역 각각을 소재로 한 유화, 수묵화, 사진, 영상, 도자기, 조각 등 초대 작가 25명의 작품 70여 점을 통해 근·현대 작가들의 작업의 변화 양상, 이원적 세계가 해체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전통적 가족상이 붕

괴되면 당장 공동체에 금이 갈 것처럼 여겼지만 이전 혈연과 무관한 복합적 가족이 등장하는 시대다. 소나무나 백자 소재 작업들에선 실재와 허구의 경계 혹은 그 같은 구분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 사군자의 하나였던 대나무는 현대 작가들에게 더 이상 추구해야 할 이념이 아니다.

작고 작가로는 이증섭의 은지화 '계와 가족' (1950년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배운성의 '가족도' (1930년대)를 비롯 백자 그림으로 유명한 도상봉, 경주 최초의 서양화가로 알려진 손일봉, 월북 작가 임근홍, 이수억, 이만익의 작품이 나온다. 배병우·구본창의 사진, 임창민·이이남의 미디어 작품도 볼 수 있다. 제주 출신 고영훈·문봉선, 제주에서 활동하는 부현일, 이일중, 유창훈, 고용석 작가도 초대됐다.

전시는 9월 26일까지 이어진다. 내달부터는 초대 작가 중 7명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710-4273. 전선희기자



연극인 강상훈·정민자 부부. '늙은 부부 이야기' 공연 홍보물로 촬영했던 사진이다.

## 연극 인생 40주년 관객에 더 가까이

### 제주 강상훈·정민자 부부 '먼 데서 오는 여자' 공연 6월 29-7월 17일 세이레

2019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제주 연극인 강상훈·정민자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연극 인생 35주년'을 기념해 2015년 제작·공연한 '늙은 부부 이야기' 원작의 대사를 제주 방언으로 바꿔 다시 무대에 올리던 무렵이다. 부부는 운영 중인 소극장을 지키기 위해 갖은 일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무대 위에선 고단함을 잊은 모습이었다. 근래엔 두 사람이 가꾸는 소극장에 '동네극장'이란 간판이 새로 달렸다. 코로나19 시국에도 무대에 대한 그들의 갈망, 열정은 여전히 뜨겁다.

이 여름, 부부가 연극 인생 4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연극을 준비했다. 이달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세이레아트센터 동네극장(제주시 서광

로 182-6)에서 펼쳐지는 '먼 데서 오는 여자' (배삼식 작, 정민자 연출)다. 40년 제주 연극계의 한 축을 떠받쳐온 그들이 오히려 관객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다.

'먼 데서 오는 여자'엔 갑작스런 사고로 딸을 잃은 노부부가 등장한다. 참척의 고통을 잊기 위해 각각의 심연으로 마음을 기대는 여자, 그 여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네가 겪어온 지난 날을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공연은 매회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된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공연이 없다. 관람료는 무료. 하루 30명에 한해 선착순 예약 문자(010-3043-8911)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 작품을 시작으로 올해 세 차례 더 40주년 기념 공연을 펼친다. 9월 강상훈의 모노드라마 '백조의 노래' (안톤 체홉 작), 10월 정민자의 모노드라마 '행' (이강백 작)을 예정하고 있고 '늙은 부부 이야기'도 또 한 번 상연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 찾그릇에 물든 푸르른 제주 산수국

### 정란영 세 번째 도예전 '진심' 꽃말 새기며 작업

이 계절 피는 산수국에 반한 제주 도예가가 있다. '수국 아래 노닐다'란 제목으로 세 번째 도예전을 여는 정란영 작가다.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심헌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에서 정 도예가는 여름날 도심 거리에서, 산과 들에서 꽃을 피우는 수국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산 속 나무 아래 무리지어 피어있는 제주 산수국이 뿜어내는 '푸른 코발트 빛'에 마음을 뺏겼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인위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색상을 구현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작가는 평소 코발트색을 즐겨 사용했고 푸른색 유약 발색에 관심이 있던 터라 자연스레 산수국의 빛깔을 도예 작품에 옮겨보고 싶었다.

그의 작업은 주로 물레를 돌려 성

형한 후 약간의 손질을 가하는 방식으로 손맛을 살렸다. 출품작은 차 도구, 그릇 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수국꽃 형태의 다관 뚜껑, 수국 꽃잎을 형상화한 찻잔 등 차를 마시는 동안 '진심'이란 꽃말을 지닌 수국 꽃발에 머무는 기분이 들도록 했다.

정 도예가는 제주대 산업디자인학부에서 문화조형디자인을 전공했고 명지대 산업대학원을 졸업했다. 제주 도예가회, 제주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시장은 제주시 아란 14길 3에 있다. 연락처 702-1003.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정란영 도예전 '수국 아래 노닐다'.

## 성평등한 사회 향해 예술 씨앗 틈운다

### 제주 등 5개 지역 연대 아카이브랩·캠페인 등

씨앗을 틔우고 영상을 나누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 행동이 펼쳐진다. 상상창고숨이 주최하고 ACE(Art & Culture & Equal-

ty)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성평등 네트워크 인 제주 2021'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예술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치러진다.

이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인 '문화

예술X성평등 아카이브 랩'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계의 여러 주체들이 아카이브 활동으로 꾸민다. 제주, 전주(전라권), 부산(경상권) 인천(경기권), 춘천(강원권) 등 5개 지역이 연대해 운영된다.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며 성평등의 의미를 성찰하고 성평등 메시지를 공유하는 과정인 성평등 문화 및 기 캠페인 '씨앗(see:art)'도 열린다. 이달 20일까지 SNS(https://

instagram.com/aceinjeu)를 통해 선착순 100인의 신청을 받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제주에서 협찬한 제주까지콩 '씨앗 패키지'를 배달한다.

온라인(https://2020aceinjeu.com)상에서 31인의 성평등 메시지를 공유하는 '문화체육 31'도 있다. '편견을 깨고, 유쾌한 마음' 주제로 한 성평등 포럼 '도래할 연대'도 예정됐다. 전선희기자

### 미술품 감상·투자법 강의 돌문화공원 내 누보 특강

천경자·백남준의 삶과 예술 세계를 살피고 미술품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 돌문화공원 내 누보가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 '한국미술거장' 전과 연계해 준비한 세 차례의 특강이다.

첫 특강은 이달 19일 오후 4시 김종근 미술평론가가 '한국의 프리다 칼로, 천경자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천경자 화가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 평론가는 '미인도' 위작 사건 당시 작가의 절규와 상처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회 등을 전할 예정이다.

두 번째 특강은 이달 25일 오후 4시 '백남준의 열정과 꿈을 쫓아서'란 주제로 진행된다. '나의 사랑 백남준' (2016), '백남준: 동서양을 호령한 예술의 창시자' (2020)의 저자인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강사로 초청됐다.

세 번째 특강은 '미술품, 어떻게 감상하고 투자할까'란 주제 아래 서울옥션 대표를 지낸 이학준 크리스티 코리아 대표가 맡는다. 국제 미술 시장의 흐름, 한국미술의 국제적 인지도, 미술품 투자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견해와 경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30명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회당 2만원이다. 예약 전화 727-7790. 전선희기자

**수축상**  
CONGRATULATIONS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문석찬**  
(남녕고등학교 제4회)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4대 남녕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고영종** 의 동문일동

**수축상**  
CONGRATULATIONS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송종화**  
(前 새마을지도자용담2동협의회장)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 20회 건축과**  
회장 **강동진** 의 회원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0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